

Update in management of postpartum hemorrhage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김 윤 하

산과학은 “유혈직중 (bloody business)”으로 여길 만큼 출혈과 연관이 있으며 근래에는 병원에서 분만하고 수혈에 필요한 혈액이 공급됨으로써 모성사망률이 감소되었지만 아직도 출혈에 의한 사망은 모성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1999~2000년 우리나라 모성사망의 원인 중 단일 원인으로는 분만 후 출혈이 20.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산과적 색전증 16.5%,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 12.6%로 이 세 가지 원인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전치태반 2.4%, 태반조기박리 1.9%로 보고되었다. 출혈사의 주요 소인은 태반조기박리 19%, 열상이나 자궁파열 16%, 이완성출혈 15%, 혈액응고장애 14%, 전치태반 7% 등의 순으로 보고되고 있다. 만약 전혈이나 혈액성분이 즉시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과적 출혈은 치명적이다.

산후출혈은 대부분 태반착상부위로부터 과도한 출혈이 일어나는 자궁이완이나 산도손상에 의해서 일어나며, 과도한 출혈이 있는 것은 진단이 아닌 상황의 기술이며 반드시 그 원인을 찾고 적합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산후출혈은 분만 3기가 완료된 이후 500 ml이상의 출혈이 있을 때를 말한다. 하지만 질식으로 분만하는 산모의 거의 절반이상에서 양적으로 측정하였을 때 이 만한 출혈이 있다. 하지만 500 ml이상 산후 출혈 양이 추정되면 과도한 출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신부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분만 방식에 따른 평균 출혈량은 다르므로 과도한 출혈 즉 산후 적혈구용적율이 10%이상 감소하거나 수혈이 필요한 경우로 정했을 때 질식분만인 경우 3.9%, 제왕절개술시 6~8% 빈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산후 출혈은 분만 후 첫 24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조기 산후출혈과 24시간이후부터 6주 사이에 생기는 만기 산후출혈로 나눌 수 있다. 조기 산후출혈은 출혈량이 매우 많고 이환율이 높다. 자궁이완에 의한 것이 가장 많으며, 생식기 열상으로 올 수 있다. 태반조식잔류에 인한 것은 드물다. 만기산후출혈의 원인은 태반조식잔류와 태반착상부위 복귀지연이 대부분이다.

자궁이완증은 20예 분만중 1예에서 발생되며 태반만출 후 적절한 자궁수축이 안되어 심한 출혈을 나타내게 된다. 위험요인은 태아거대증, 다태아, 다태임신 등 자궁이 과도하게 팽창된 경우, 급속분만, 지연된 분만, 용모양막염 등 근육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자궁수축이완제나 마취제 등으로 인하여 수축력이 떨어지는 경우 등이 있다.

산후출혈 처치의 첫 단계는 먼저 일차적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가장 흔한 원인인 자궁이완증은 자궁의 양수 촉진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으며 처음에 자궁저부 마사지와 옥시토신 정맥 주입으로 처치할 수 있다. 자궁수축이 충분히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홍색 출혈이 계속되면 생식기 열상과 태반조식 잔류와 그 외 원인을 검사해야 한다.

내과적치료로 옥시토신, 에르고트 알칼로이드, 프로스타글란딘을 투여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카르베토신

(carbetocin, duratocin[®])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데, 옥시토신 수용체에 결합력이 뛰어나고 한번 투여로 60~120 분간 지속되어 긴급한 처치가 필요할 때 옥시토신보다 효과가 강력하여 먼저 투여할 수 있다. 여러 차례의 자궁 수축제를 투여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출혈이 있다면 예기치 못하는 생식기 열상에 의한 출혈이나 자궁파열일 수 있다. 만약 출혈이 지속된다면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되며 우선적으로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궁이완 증은 대부분에서 내과적 치료에 반응하지만 불가피하게 외과적 처치, 즉 자궁동맥 결찰술, 내장골동맥 결찰술, 자궁내 충전, 자궁 압박 봉합 기술, 혈관조영 색전술, 자궁적출술 등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수술 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 모성사망과 이환을 줄일 수 있는데 혈액 성분의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투여를 위하여 적혈구용 적율과 다른 혈액응고 검사를 조기에 분석함이 좋다.

장차 새로운 자궁수축제와 수술기법 및 장비들이 개발되어 치명적인 산후출혈 관리가 극복되기를 기대한다.